

새봄 예감하는 문학 열정... 한라 신춘문에 열기

전국서 3개 부문 517명 응모 시·시조·소설 합쳐 1592편 17~20일 부문별 예심 진행 본심 결과는 1월 1일자 게재



서안나 시인



이종형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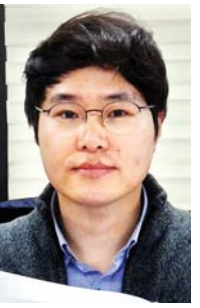
김진숙 시인



이서원 시인



양혜영 소설가



노대원 평론가

그곳에 꽃피는 봄을 예감하는 문학 열정이 피어났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0한라일보 신춘문에 예심 현장이다.

한라일보 신춘문제는 1989년 창간 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치러지고 있다. 시·단편소설에 더해 2016년에는 시조 부문이 신설되는 등 제주는 물론 전국에 걸쳐 문학 신인을 발굴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예비작가 517명이 모두 합쳐 1592편에 이르는 작품을 보내왔다. 3편 이상 5편 이내를 접수한 시는 261명 1041편, 시조는 95명 384편, 소설 161명 167편이 도착했다. 본보 회의실에서 열린 예심은 부문별 2명씩 심사위원을 위촉해 시조(17일), 시(18일), 소설(20일)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시 15명, 시조 11명, 소설 14편이 본심으로 향했다.

시 예심은 이종형·서안나 시인이 맡았다. 한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서안나 시인은 심사평에서 “응모작들은 전통 서정에 안주하기보다, 기존 인식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 시의 이야기성이 강조되어 산문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 역시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며 “예심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익숙한 비유와 수사를 구사하는 안정적인 작품 보다 역동적 상상력과 사유의 내면화가 돋보이는 작품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시조는 제주 김진숙·울산 이서원 시인이 심사에 나섰다. 심사를 마친 김진숙 시조시인은 “읽는 즐거움, 상상하는 즐거움으로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읽은 것처럼 한 편의 시조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공감하고자 했다”며 “음보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은 작품, 과하지도 엇스럼지도 않은 따뜻한 언어가 만져지는 작품에 마음을 엮었다”고 전했다.

소설은 양혜영 소설가와 제주대 교수인 노대원 문학평론가가 심사했다. 양혜영 소설가는 “각박하고 불안한 경제 때문인지 가정과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토로한 작품이 많았다. 특히 제주4·3과 월남전 등 지난 전쟁의 상흔을 되짚거나 전쟁 시물레이션 게임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여럿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며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고 ‘신춘’의 희망을 꾸게 하는 참신한 발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작품들을 본심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노대원 평론

가는 “전통적인 소설 미학을 빈틈없이 추구하거나 삶의 다양한 고통과 기쁨을 섬세한 필치로 포착하려는 작품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튜브나 게임과 같은 뉴미디어, 신경과학에 대한 관심과 통찰을 보여주는 시의성 있는 작품, 그리고 발랄하고 새로운 화법의 작품들도 있었다”며 “대체로 전자(전통적인 소설 경향)는 관습적인 이야기나 감성을 보여주면서 지루해지기 쉬웠고, 후자들(새로운 소재와 스타일을 추구)은 새로운 소재만을 앞세우거나 이야기의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했다.

본심 결과는 2020년 1월 1일자 지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전선희기자

베토벤 교향곡 ‘합창’으로 2019년과 이별

도립제주예술단 송년 공연 서귀포합창단 등 호응 맞춰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으로 연말 무대를 장식한다. 이달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2019송년음악회다.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상임지휘자

가 지휘봉을 잡는 이날 공연에는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등 제주예술단만이 아니라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으로 무인 서귀포합창단과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김지선, 테너 황병남, 베이스 손혜수가 참여한다.

송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인 ‘합창’은 4성부의 독창과 혼성 합창이 기악과 결합된 교향곡이

다. 최초로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져 낭만주의의 탄생을 이끌었다. 독일의 시인 실러의 ‘환희의 송가’를 노랫말로 인류의 이상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곡을 만들 때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잃은 상태였지만 절망 대신 자유와 화합, 고뇌를 넘은 환희를 표현했다.

관람료 무료. 다만,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1인당 2매씩만 객석을 선

택할 수 있다. 문의 064)728-2776-7. 앞서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도 서귀포예술의전당과 공동 기획으로 지난 19일 저녁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2019 송년음악회’로 베토벤의 ‘합창’을 선곡해 들려줬다.

이날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는 서귀포관악단이 연주를 맡았는데 관악단 선율로 풀어내는 ‘합창’은 드문 일이다. 제주합창단이 특별출연해 서귀포합창단과 호응을 맞췄고 소프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신상근, 바리톤 고성현이 출연했다. 전선희기자

르 클레지오 소설 ‘폭풍우’ 제주점자도서관 점역 출간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가 제주를 배경으로 쓴 소설 ‘폭풍우’가 점자도서관에서 나왔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은 최근 ‘폭풍우’를 점역 출간했다. ‘폭풍우’는 르 클레지오가 어린

시절 지오그래피 매거진에서 본 제주 해녀를 실제로 만나 그들의 용기와 삶의 의지에 감동 받아 집필한 소설로 알려졌다. 점자도서관은 전국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시선에서 제주 해녀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역에 나섰다. ‘폭풍우’는 본래 신국판 변형 크

기에 316페이지로 발간된 도서지만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의 특성상 점자판(230×280mm, 바인더제본) 1권(124페이지), 2권(150페이지), 3권(119페이지)으로 묶었다. 출판사인 서울출판사의 자료협조와 제주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발간된 책으로 전국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유관 기관에 무상 배포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12월 23-29일) 무대 & 미술

청년작가가 빛은 ‘가장의 무게감’

청년유망예술가 육성지원 김선일씨 개인전 ‘자화상’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

이 겨울, 제주 청년작가가 존재의 무게감을 물으며 작품을 빛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유망예술가육성지원으로 김창열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선일 작가의 개인전 ‘자화상’이다. 철판과 혼합 재료를 이용한 작품들은 “반복되는 ‘고지서’ 처리와 ‘가장’이란 무게감 앞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가?”란 질문에서 시작했다.

<공연>

▶클래식과 재즈를 위한 이중주의 밤=12월 23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브라스퀼렛 연주회=12월 24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연극 ‘러브 액츄얼리’=12월 24일 오후 2시, 5시, 8시 문예회관. 010-5351-9422.

▶연극 ‘수상한 흥신소’=12월 24일 오후 5시, 7시30분 문예회관. 010-6637-7394.

▶피아노부 라비=12월 24일~1월 5일 두근두근시어터. 010-6691-1727.

▶어린이 마술 콘서트=12월 25일 낮 12시, 오후 2시와 4시 서귀포예술의전당. 010-5822-0164.

▶김양남 피아노 독주회=12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010-4086-0863.

▶민요패 소리웃 소리웃 제주섬 아리랑=12월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4시 문예회관. 721-4967.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송년음악회=12월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2745.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소극장 콘서트 ‘겨울’=12월 27일 오후 7시30분 소극장 채플린. 010-9839-3717.

▶일령뮤지컬페스티벌=12월 28일 오후 6시 스테이지 헤르츠. 010-4667-2338.

▶어린이 마술 콘서트=12월 28~29일 문예회관. 010-3729-7555.

<전시>

▶제주만화작가회 정기전=12월 23-29일 연꽃러리. 010-4001-5991.

▶제주 어반스케etch스 회원전=12월 24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7168-7952.

▶박창범 개인전=12월 25-31일 제주시 관덕로 8길 36 박창범 화실. 010-8774-9137.

▶아름다운 동행=제주창조미술협회 12월 2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사신사랑 회원전=12월 2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섬문화 한라산학교 ‘10년간의 기록’=12월 2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탐라미술인협회 소품 판매전=12월 28-31일 KBS제주. 740-7152.

▶서석각자회 회원전=12월 28일~2020년 1월 2일 문예회관. 710-7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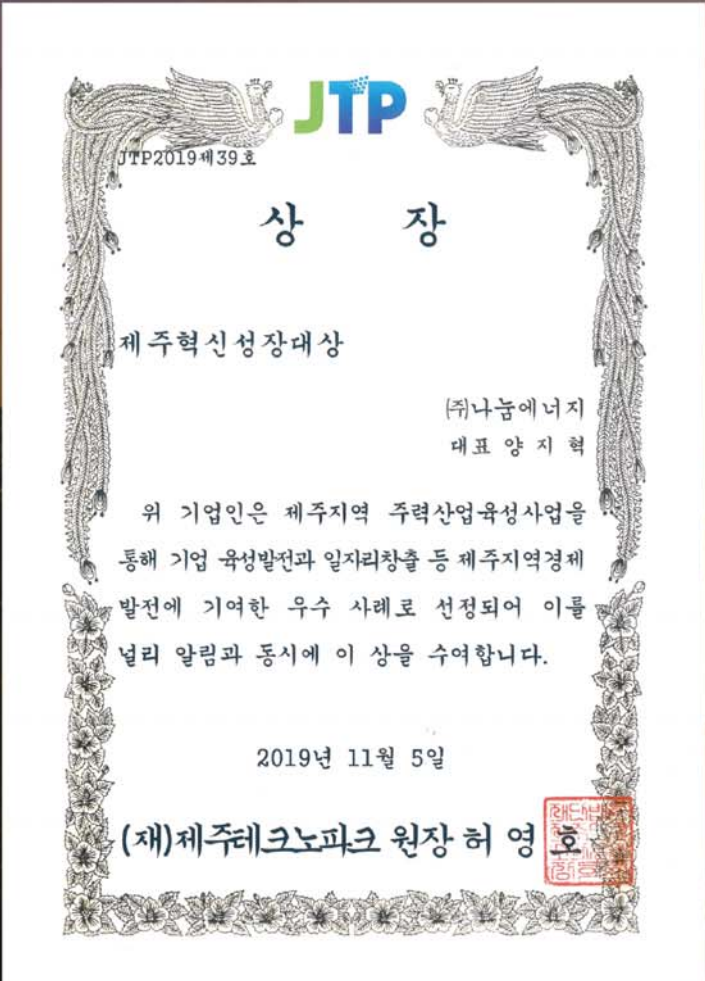
▶섬여백회전=12월 28일~2020년 1월 2일 문예회관. 710-7633.

▶전통유방공예 동심결 정기전 ‘담다’=12월 28일~2020년 1월 2일 문예회관. 728-2745.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12월 29일까지 김창열미술관 다목적 공간. 010-6866-6841.


▶보 썬 차오 개인전 ‘구름이 멀리 날아가게 두세요’=12월 29일까지 문화공간 양. 755-2018.

▶허윤희·홍보람 2인전=12월 29일까지 아트스페이스씨. 745-3693. 전선희기자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공지능보유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